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2일(목)부터 신진식 전도사가 바울서신3(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을 강의합니다. 목요성서학당은 오전 10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집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회로 열립니다. 기도회 이후에 '재난을 겪고 견디는 마음'(강사 : 한상의 장로)에 대한 특강시간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중구용산지방 집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만리현교회에서 열립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 7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담임목사는 양평지방의 웨슬리회심기념 집회를 인도합니다.

서울역 다움교회의 이전 감사예배가 24일(토) 오후 2시에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행 7:55~60 / 시 31:1~5, 15~16
벧전 2:2~10 / 요 14:1~14

롬 6:8-14

오늘 식당 봉사 : 이순정 오복순 원인혜 박안수 이윤석 임창선 이광욱
다음 주 식당봉사 : 김금순 이은정 서수진 이수정 이선화 최영혜 김기성
오늘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떡 대 접 : 정복순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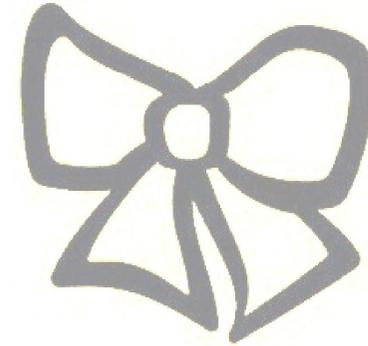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답 없는 세상의 답이 되시며 길 없는 세상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국가의 폭력과 무관심으로 자식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식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목 놓아 우는 어미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회가 그 부모들의 텅 빈 마음을 같이 채워가게 하시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사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터키의 탄광 사고, 아프리카의 산사태, 나이지리아의 납치사건의 피해자들을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구명자 권미숙 권채영 권혁순 박혜경 김명하 오형일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상호 김정길 최숙화 김정민 이혜령 김종락
 박영신 김현동 김현주 김혜영 김희진 박홍재 노성희 김만균 류건형
 이주은 박예림 박옥순 백성래 서정순 성지현 오미경 우순덕 윤수진
 윤창서 이수연 이정은 이주영 오재영 이진영 한양미 이호원 임서영
 임호성 정연희 정영례 정현모 조관행 홍선희 조현권 박아영 주경진
 이윤정 최다미 최철수 광권희 추현영 한인철 조윤숙 한훈식 허호범
 박성실 황자순 무명

감사헌금

강미선 김향자 박이연 박호규 강영님 우순덕 유영남 은종인 이동천
 이유일 김미희 장재영 김재영 주명재 한성자 진성권 한미영 홍순구
 안홍숙 황경순 무명9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박혜경

녹색꿈헌금

김용길 최영혜 김재환 김진선 김흥기 문금석 시시권 백경임 윤성종
 김윤정 윤여민 임보람 윤하빈 이진영 한양미 임승동 백혜숙 무명4

	백혜숙	박성희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백혜숙	이재문
	장영숙	신영신	신영신	박정숙
	노순옥	진정숙	심수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김경수	백묘현
	권미숙	박미영	권미숙	허정운
	김금순	김금순	오복순	유금주
	광권희	윤수진	광권희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이증자	임영선
	정영선	홍춘숙	김경혜	김희우
	박혜경	박혜경	박혜경	김희창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종		

최초의 사람

- 권현형

창이 커다란 청모자를 쓴 아이가
 제 동화책 속에서 걸어 나와
 검정 에나멜 구두로 땅을 두드린다
 최초의 사람인 듯 최초의 걸음인 듯
 가우똥 가우똥 질문을 던지며 걸어 다니다
 집을 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 봄의 부랑자들,
 길바닥에 떨어져 누운 꽃점들을 두고
 차마 지나치지 못하여 한참을 서 있다가
 바르비중 마을의 여인처럼 가만 무릎을 꿇는다
 이삭 줍듯 경건하게 주워 올려 본래의 등지
 나무 가까이에 도로 놓아준다 방생하듯
 봄날의 바다에 꽃의 흰 꼬리를 풀어 놓아준다
 꽃 줍는 아가야, 환한 백낮에 길 잃은
 한 점 한 점을 무슨 수로 네가 다 거둘 것이냐
 몸져누운 세상의 아픈 뼈들을 무슨 수로
 일으켜 세울 것이냐 한 번 떨어져 나온 자리로는
 다시 돌아갈 길 없다
 네가 옮긴 첫발자국이 그토록 무겁고 서러운
 질문이었음을 기억하거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웃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이를 위로하고 마음을 함께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아멘.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할 뿐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설교 : 김재흥 목사 기도 : 박미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상의 장로	정윤성 선생 박석희 집사

5월	영접위원	윤석철 하현철 문홍일 김금순 강순배 장혜숙
	헌금위원	김인걸 안홍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교사로 산다는 것

조너선 코졸의 『교사로 산다는 것』은 국내에 소개되는 그의 세 번째 저작이다. 처음 그의 약력을 보았을 때 판에 박힌 듯 드라마틱해서 좀 식상하기까지 했다.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옥스퍼드에서 수학했던 전도유망한 백인 청년이 스스로 보스턴의 흑인 거주지역의 형편 없는 초등학교 교사를 자원하고, 이로부터 40여 년간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써서 저명한 문필가가 됐고, 지금은 진보적인 교육운동가로 미국에서는 노엄 촘스키만큼의 명성을 얻고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젊은 교사에게 보내는 편지』와 『야만적 불평등』을 읽고 나니 그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어졌다. ...

조너선 코졸은 교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신봉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드러내자고 제안한다. 도둑질을 가르치고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사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거짓 없이, 자기 생각을 드러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교단에 로봇을 세우지 않고 사람을 세운 이유인 것이라. ... 여기서 그는 몇 걸음 더 나아간다. 아이들에게 “제3의 입장을 찾아보자”느니 “극단을 경계하자”느니 따위 어설픈 소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 우리의 경우에도, 1970년대 전태일이 그러했고, 조선 말기 동학 농민군과 일제 강점기 초기의 안중근과 유관순이 그러했듯, 갈지자로 걸어온 우리 역사가 이나마 진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극단의 고통에 대한 이러한 개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극단적 시련에 맞선 극단적 반응은 때로 인류의 고통에 대한 고결한 인간들의 유일하게 윤리적인 반응”이기도 했던 것이다. ... 조너선 코졸은 교사들이 더 깊이 공부하여 양측 모두에 관련된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할 너그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견해를, 때로 극단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교육적인 교수 방식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수업은 공책에 필기한 내용도 아니고, 교과서에 인쇄된 공색한 문장도 아니며, 수업하는 내내 교사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시지”인 것이다. ...

조너선 코졸은 아이들에게 직접 역사책을 쓰도록 가르친다. 오늘날 역사 교육이란, “보통 사람이 느낄 수도 없고 살아낼 수 없는”, 그저 왕조 교체의 연대기이자 전쟁의 기록일 뿐이기 때문이다. 대신 ‘자신의 입장’에서 직접 서술함으로써 역사적 사실들을 자기화된 해석으로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아이들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는 비판이 곧장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유통되는 모든 교재들과 텔레비전, 신문과 잡지를 가리키며 “저건 뭐냐”고 되물으면 될 것이라고 코졸은 말한다. 그러면 또 이런 비난이 들어올 것이다.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가르쳐서야 되겠느냐”고.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현대 세계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고, 제3세계의 독재와 비참에 큰 책임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러한 미국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쳤을 때 아이들에게 닥쳐올 죄책감은 또한 한 사람의 정직한 미국 시민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코졸은 “죄책감만이 건전한 반응일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한다. 신경증적인 구속이 아니라 반성적 행위로 인도하는 죄책감, 그것은 한 존재를 윤리적이고 강인하게 성장시키는 한 계기인 것이다.

... 이 책 맨 끝에 인용된 예브게니 엡투센코의 시의 일부를 소개한다.

잘못을 알면서도 용서해서는 안 되네

그냥 두면 반복되고 늘어나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용서했다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